

육상경기장 · 야구장 투자심사 정부 통과

전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짓기 위한 사전행정 절차인 중앙정부 심사가 사실상 일단락 됐다.

2일 전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결과,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건립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날 행안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과 재정부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수지균형 방안 마련, 세

부운영계획 마련 등 4가지 조건을 전제로 사업의 투자심사를 통과시켰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이 같은 조건들은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전제되는 사항으로 사실상 심사를 통과했다는 의견이다.

이로써 전주시는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전주육상경기장과 야구장건립을 추진한다.

양 시설은 현재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위치한 장동 인근에 2만1646㎡ 규모로 조성된다. 전주육상경기장은 1만 500석을 갖춘 1층시설로, 야구장은 전국대회가 가능한 8000석 규모로 추진된다.

당장 시는 이달 1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 토지매입과 기본설계 등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1147억원을 마련한다. 807억원은 시비로, 나머지 34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확보한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고자 300억원 이상의 사업시행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를 진행한다.

전북도는 '전주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건립사업'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행안부에 심사를 요청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보통 모든 중앙정부의 심사결과에서 조건들이 전제돼 사실상 사업이 통과한 것"이라며 "당장 시의회 동의를 구해 이달 100억원을 확보해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합돌봄 이끈다

전주시, 통합 돌봄 교육 실시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회장 정원선)는 2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35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정 연합회는 전주시 35개 동의 민간 위원장으로 조직됐으며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열고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각 동의 활동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 및 협의체 활동 우수지역 강사초빙 교육 등 특별 특화 사업 발굴 및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연합회는 전주시가 최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위원들의 통합돌봄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위원들은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케어 회의를 담당하게 될 동 협의체의 역할 등에 대해 관심있게 청취하고 통합 돌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김성국 위원은 "우리 지역이 통합 돌봄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대중에 알리고는 있었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통합 돌봄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소외된 이웃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협의체 위원장님들께 감사 드린다"며, "전주시 통합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북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본상 수상

곰드래장애인협회

곰드래장애인협회가 제1회 전북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본상'을 수상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전북도 민일보와 사회적기업 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본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재)곰드래장애인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기업활동을 통해 전체 고용인원 66명중 49명의

장애인을 채용받은 물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양현섭 곰드래장애인협회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 또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근로 조건 및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원주 교육공동체 학부모 모임'은 원주군청에서 자사고의 설립취지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북교육청의 운영평가가 합당하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지지”

원주 학부모들, 자사고 설립 취지 비판 “운영평가 합당
지난 정권 추진 고교다양화 사교육 확산만 남긴채 실패”

원주군 학부모들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 결과에 찬성하고 나섰다.

'원주 교육공동체 학부모 모임'은 원주군청에서 자사고의 설립취지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전북교육청의 운영평가가 합당하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사고 정책이 낳은 결과는 참담하다"며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고교다양화 300프

로젝트'는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확산이라는 부작용만 남긴 채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사고의 설립취지는 일반고의 일률적인 학교운영에서 벗어나 학교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부여해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라며 "부작용만 남긴 민중대입제도와 고교서열화 문제를 해결

할 근본적인 방안을 더붙어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모임은 "이에 따라 정치권이 자사고를 두고 폐지나, 존치냐의 과도한 개입은 더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모임 관계자 조씨는 "최근 상산고 운영평가 점수와 비슷한 타 지역 자사고가 재지정 되면서 이를 두고 비판하는 언론이 있다"며 "이러한 개입은 교육자치 위협을 넘어 가치를 더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석훈 기자

'빅데이터의 이해와 활용'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개원 28주년 기념 심포지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의생명연구원 개원 28주년을 기념해 오는 4일 병원에 임상연구 지원센터 새만금읍에서 '임상의사의 빅데이터 이해 및 연구 활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과 전북대학교 임상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초 및 임상교수와 수련의, 연구원을 대상으로 임상적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빅데이터 이해 및 분석하기(최장 전북대병원

박종관 교수)△빅데이터 및 병원자료 활용하기(최장 전북대병원 박대선 전북빅데이터 센터장)△CDM을 활용한 연구 과제 소개(최장 가톨릭대학교 김현성 교수) 등 임상적 빅데이터에 대한 전반적 이해부터 구체적인 활용까지 다양한 깊이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은 임상 및 기초의학의 연구를 통한 의학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1991년 임상실험연구소로 출발했다.

한편, 1997년 임상연구소는 2012년 의생명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운영되면서 새로운 의생명연구 분야에 도전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대선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4일 상고심 선고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71)의 상고심 선고가 다가왔다.

대법원 2부는 오는 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대선을 앞두고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의원은 '더불어희망포럼'이 기존에 존재한 조직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은 일부 회원과 공모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 임박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강석훈 기자

'운전 천천히 해서' ... 70대 노인 폭행 10대 붙잡혀

운전을 천천히 한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모(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경 익산시 평화동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모(71)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 앞에서 오토바이를 몰

던 B씨가 천천히 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본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재빨리 현장에 도착했지만, A군은 달아나 뒤였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군이 탔던 택시를 특정, 찾아내 택시 내부 블랙박스를 통해 A군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후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군을 추적해 체포했다. /강석훈 기자

맑은물사업본부, 71곳 대상 종합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적합'

전주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강승권)는 여름철을 맞아 고산정수장과 10개 배수지, 수도꼭지수 80개소 등 총 71개소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 판정됐다고 2일 밝혔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최근 인천과 서울, 부산, 안산, 평택 등 전국적으로 수돗물 적수유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1주일 동안 수질검사실 검사 요원들을 2인 1조의 2개조를 편성, 정수장부터 배수지, 수도꼭지수까지 각 급수과정 단계별로 시료를 채수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타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철 △이온 △구리 등 2차로 수질변화가 발생하거나 적수발생 오염 가능 여부를 알아보는 총 12개

항목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인 수질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붉은 물의 원인인 철 성분의 경우 수질기준이 0.3mg/l 이하인데 71개소 모두 불검출됐다.

또한 수질기준이 3.0mg/l 이하인 아연성분의 경우 최대 0.18mg/l, 평균 0.08mg/l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는 수질기준이 0.5NTU이하인 반면, 검사한 71개소에서는 최대 0.15NTU, 평균 0.07NTU로 나타났다.

급수관에서의 미생물학을 형성하거나 세균·대장균 검출의 요인 및 소독냄새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는 잔류염소는 수질기준이 4.0mg/l 이하인데, 조사결과 전주시 수돗물은 최대 0.56mg/l, 평균 0.35mg/l인 것으로 조사됐다. 잔류염소의 경우 불검출되면 오히려 세균·대장균이 발생하거나 미생물학 형성으로 안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다.

아울러, 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수소이온농도(pH)는 수질기준이 5.8~8.5인데 조사결과 평균 7.1로 나타났다. 수소이온농도가 6.5이하이면 산성이고 7.5이상이면 알칼리성인데 전주시 수돗물은 중간수준인 것으로 조사돼 중성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71개소 대부분의 조사에서 12개 항목이 거의 불검출 수준이었으며 검출되었다 해도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1/4~1/10수준의 양호한 수질상태를 띠고 있어 전주시 수돗물이 먹는 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번 자체 조사와 함께 완산구와 덕진구 수도꼭지수 표본을 각각 채수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먹는 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전주시 수돗물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월드컵골프장, 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2인 플레이' 허용

전주시골프단은 여름철 비수기를 맞아 전주월드컵골프장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해 8월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2인 플레이'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골프장 측은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 3인 이상 플레이만 허용하고 있다.

골프장 운영시간은 오전 4시 4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며 2인 플레이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여름철은 낮 시간대가 비수기다. 더위를 피해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이용객이 몰리기 때문이다.

단 주말과 휴일을 제외한 평일 당일 전화예약을 통해서만 2인 플레이가 가능하다.

또, 당일 예약을 했더라도 조인 대

자가 있을 경우 2인 플레이 팀은 의무적으로 조인을 해야 한다.

월드컵골프장은 2017년부터 휴한기와 혹서기에 2인 플레이 운영을 통해 골프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성환 이사는 "혹서기를 맞아 골프 마니아 분들에게 보다 많은 라운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박형배 전주시의원

축구협회로부터 감사패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이 최근 제11회 고용노동부장관기 전국축구대회를 맞아 대회 개최에 대한 공로로 대한민국축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협회는 박 의원이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며 이에 대한 감사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주시의회 문화경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저변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효철 기자



택배물품 절도 70대 검거

상가 주차장에 보관중인 택배 물품을 훔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7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2시 30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건물 주차장에서 시가 23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폐식용유 흡천 70대 덜미

음식점 옆에 놓아 둔 폐식용유를 흡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70)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23분경 군산시내 모 음식점 출입구 앞에 놓인 시가 7만원 상당의 폐식용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